

주민자치법은 인민위원회로 가는길

“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” 본회퍼(Dietrich Bonhoeffer)

주민자치기본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주민자치회가 통반조직을 두어 소속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할수 있게 했고, 더욱이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의 대한 예민한 **신상정보(주민번호, 휴대폰번호, 범죄정보 등)**를 모든 정부기관(산하기관 포함)이나 자치단체로부터 마음껏 수집토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.

또한 주민들은 무조건 **좌파 노선**에 따르도록 법적 의무 강제, **각종 차별금지 조항** 삽입, 주민자치회에 **민노총, 전교조 등의 개입** 근거 마련, 수습조의 국가예산을 퍼부으면서도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도록 한 점 등 그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니다.

이법이 통과된다면 **헌법파괴에 버금가는 체제파괴**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.

온 국민이 총력 저지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야 할 것이다.



‘대국본 광화문온’ 앱 천만회원 모집



구글플레이



앱스토어에서 ‘대국본 광화문온’ 검색 후 설치

협력단체 : 전광훈 목사, 대불총 호국승군단장 응천스님, 천주교인 모임대표 이계성 대표, 8.15비대위, 변호인단, 1400개이상 시민단체(참여하지않는 단체는 연락바람), 대국본
회비납부 : 국민 034501-04-175799 예금주 :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문의전화: 1544-7166